

칭하이 무상사



01 다채로운 이벤트

한국/ 홍콩/ 호주/ 파나마

03 시

지고의 어머니 칭하이

04 수행의 길목에서

다른 수행단체에서 체험한 것들



07 지혜어록

진정한 스승과 정도(正道)/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09 스승과 제자 사이

오래된 입문자의 증언

12 스승님의 농담

출납원을 찾음/ 의사들은 왜 마스크를 쓰나?/
가장 좋은 흥분제/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13/ 뒤표지 안쪽 무상예술

천상의 옷과 보석의 비밀이 벗겨지다/
지혜안으로 천상의 보석을 감상하라 - 스승의 집

14 영화광장

천국보다 아름다운

15/ 뒤표지 바깥쪽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최신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칭하이 무상사의 시의 정원으로 오세요!

16/ 앞표지 안쪽 불멸의 시

스승과 나/ 메모/ 당신은 아시나요?/ 날 잊지 말아요

2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놀라운 보호력

24 건강정보

가생충학과 채식

27 스포트라이트

유전공학 - 신이 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 누가 이 몸에 사는가?

29 관음웹사이트

30 전 세계 연락처

뉴스잡지 116호

출판일자 : 2000. 12. 2.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林 氷 心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날 잊지 말아요

칭하이 무상사 (원문 영어)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아시나요?
'날 잊지 말아요'라 불리는
신비로운 푸른 빛깔의 꿈같은 꽃을.

그것은 하늘나라
저 거룩한 창공의 빛깔
머나먼 은하계의 빛깔
사랑의 빛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날 잊지 말아요'를.






한국 소식

눈물의 바다

【서울】 스승님께서 지난 5월 서울 코엑스 센터에서 대중강연을 하실 때 1만 청중을 이끌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신 이후로 이 땅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사실은 뉴스잡지 114호에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 기도가 있는 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믿기 어려운 성과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들 중에서 맨처음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50년간 헤어져 있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었다. 이 합의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실현되었다. 이날 북한주민 1백 명이 가족 상봉을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기로 한 장소가 남북 평화를 위해 스승님과 1만 청중이 손모아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코엑스 센터 컨벤션 홀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 남한의 한 노모는 북에서 온 아들을 껴안으며 이렇게 울부짖었다. “1시간이면 올 것을 왜 50년이나 걸렸단 말이나?” 그날 눈물을 흘린 이는 그 노모만이 아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를 간직해 온 한반도 전체가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이산가족 상봉은 9월과 10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다른 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도 예상된다. 한 예로, 남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고,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공연의 상호교류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때에는 남북 선수들이 하나의 깃발을 들고 입장할 것이다. 게다가 남북을 잇는 경인선 복구 공사도 착수되었다. 이는 1년 이내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홍콩 소식

새천년을 여는 활발한 움직임



새 홍콩 센터의 모습

【홍콩】 2000년 1월 홍콩의 동료수행자(이하 동수)들은 새천년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새 건물로 센터를 옮겼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단체명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이들이 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스승님께서 5월 2일 대중강연을 위해 홍콩에 도착하셨을 때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그때의 강연을 계기로 우리 관음가족에 일군의 사람들이 새로 합류하게 된 것도 무척 기쁜 일이었다. 많은 사형, 사저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스승님의 강연을 수록한 소중한 비디오 테이프와 오디오 테이프를 새로 만든 홍콩 센터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그래서 새 입문자들은 스승님의 찬란한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을 좋아하는 테이프를 주문할 수 있었다. 스승님의 초기 말씀 대부분이 중국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일요일 단체명상이 끝난 후에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중국어 기초적인 발음과 문법, 말하기 등을 게임과 노래를 통해 익히는 것 외에도 스승님의 테이프를 더욱 부지런히 보고 듣게 되니 자연적으로 스승님의 초기 법

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영적 수행에서는 명상을 많이 하는 것과 스승님의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홍콩 센터는 토요일 단체명상 후에 교리 공부하는 시간도 조직했다.

스승님은 ‘육바라밀’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방편법을 가르치시며 명상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센터에선 요가 단기도 스도 열고 있다. 약간의 체조를 하고 명상을 하면 한결 편안하게 느껴진다.


지난 6월 6일 ‘용선(龍船)축제’ 날에 우리는 동수들과 그들 가족을 위한 야유회를 가졌다. 그날 우리는 자연교육장도 방문하고 산길을 걸어서 해변가까지 산책도 했다. 일부 동수들이 취사도구를 챙겨와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맛있는 점심을 마련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수영을 하거나 보트를 타거나 환담을 나누거나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등 이날 하루를 맘껏 즐겼다. 게다가 동수 가족들은 이날 야유회를 통해 우리 단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매우 즐거워했다.

또 우리 센터에는 스승님의 요리책 ‘최고의 주방’ 외에도 다른 여러 채식요리책과 유기농식품에 관한 정보도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센터에서 유기농야채와 식품들을 단체로 주문해서 단체명상 후에 원하는 동수들이 이런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하면 유기농법지원으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고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을 섭취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동수들의 편리한 식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편 우리는 지난 7월 19일에서 26일 사이에 열렸던 홍콩 도서전시회에도 참가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렸다. 5월에 새로 입문한 동수들이 전시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센터의



홍콩 센터에서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유기농야채와 식품들을 단체주문하다.

일을 도왔는데,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하나를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정신을 잘 드러내 주었다. 



호주 소식


빛나는 얼굴, 활기찬 센터

【바이런 베이/ 노턴 리버스】 새로 문을 연 바이런 베이/ 노턴 리버스 센터는 얼굴에 광채가 흐르는 입문자들과 방편수행자들로 활기가 넘친다.

뉴 사우스 웨일즈의 노턴 리버스 지방은 진리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인 사람들이 특히 많이 모이는 곳인 듯하다. 칭하이 무상사의 무한한 은총으로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은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바이런 베이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조용한 변두리에 자리잡은, 그림 같이 아름다운 한 시골 교회에서 단체명상을 한다. 여기에는 리스모어, 방갈로, 리벡스 헤즈, 님빈, 키오글, 머월럼바, 멀럼빔바이 등 노턴 리버스 지방에 속한 여러 도시와 군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지난 8월 12일 토요일 여기 센터에서 영상강연회가 열렸는데, 우리는 그때 스승님의 사랑이 행복의 물결이 되어 온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비디오 상영에 이어 질의응답시간과 채식시식회를 가졌던 이날 강연회에 많은 신실한 구도자들이 참석했다. 강연회가 끝났는데도 다들 떠나기를 아쉬워하며 강연장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또 많은 이들이 입문신청을 했는데, 더러는 진리에 너무도 목말라하고 있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친숙한 우리는 그들의 갈망이 어떠한지를 너무도 잘 안다. 방편법 전수와 관음법문에의 완전입문이라는 스승님의 관대한 선물을 받아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넉 달에 한 번씩은 이와 같은 강연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파나마 소식

데이비드 시에 빛을 가져오다

【파나마】 8월 4일 파나마 동수들은 파나마 시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취리퀴 지방의 데이비드 시로 향했다. 이곳에서 영상강연회가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몇몇 동수들이 강연회가 있기 이틀 전부터 이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안내전단을 돌렸다. 우리는 하루 일찍 도착해서 강연회도 준비하고 명상을 하면서 이곳 주민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강연회 당일 우리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요청으로 정오 인터뷰를 했다. 그건 굉장한 일이었다! 스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 스승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 곳에 있던 모든 이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라디오 프로 진행자는

우리의 얘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영상강연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영상강연회 장소로 갔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1시간 동안 명상을 했다. 강연회 예정 시간이 임박했는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험상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실한 구도자들이 스승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강연장을 찾았다. 강연회가 끝날 무렵 일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길 원해서 그 자리에서 방편법 전수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방편법 전수과정의 끝났는데도 못내 아쉬운 듯 자리를 뜨지 못했다.

8월 26일, 우리는 취리퀴 지방으로 돌아와 방편법 수행자들과 더불어 단체명상을 했다. 새로 수행을 시작한 방편입문자들이 좋은 체험을 했다는 말을 듣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방편법 신청을 했다. 그들은 매우 신신했으며 방편법을 배운 뒤에 아주 흡족해했다. 이들 새 방편수행자들 가운데 일부가 언젠가는 꼭 관음법문에 입문하겠다는 자신의 의향을 밝혔다. 🍀



시

지고의 어머니 칭하이

그녀는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그녀는 당신 마음속 영원한 사랑의 그리움입니다.
그녀는 당신 생명속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어린 시절 새싹의 꿈입니다.

당신은 태어났을 때 이미 알았지요.
그녀, 천부의 성자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거라는 것을.

당신 어머니는 생명의 영혼이며 신의 화신입니다.
당신 불멸의 영혼은
지금 신이 성찬을 즐기는 성지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호세 멘데스 사형
칠레 산티아고
(원문 스페인어)



다른 수행단체에서 체험한 것들

1999년 2월 15일
미국 플로리다 센터 음력설 행사기간에
칭하이 무상사와 제자들이 나눈 대화에서 발췌
(원문 영어)



문 (입문자 A): 저는 14년 동안 한 인도 스승과 함께 지냈습니다.

스승: 14년간이나요! 긴 세월이군요.

문: 그들의 아쉬람에는 여러 '개인성장그룹' 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치료법이나 안마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스승: 온갖 것들을 가르치죠. 알아요.

문: 생체에너지 식이요법 등등이요.

스승: 그건 좋아요.

문: 그런 과정들을 마친 후에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고 생기있어 보입니다.

스승: 그것이 얼마동안 지속되나요?

문: 그게 문젠데요. 저는 그들이 어떤 일정한 수준에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스승: 그들은 관음법문을 가르칩니까?

문: 아닙니다.

스승: 그렇다면 다르죠. 알죠? (예, 압니다.) 관음법문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외적인 활동이나 조직, 치료법에 대해 말할 가치가 없죠. 이 전부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수준에 있는 것이니까요. 심리학적인 치료 역시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진동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치유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일시적일 뿐이고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아무런 치료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낫죠. 우리는 어떤 치료법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알려준대로 행하기만 하면 향상되죠.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낫는 것이고 영원토록 낫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 치유력을 간직하는 거니까요. 스승이 함께 있든 없든 여러분이 그 힘을 간직하고 보존합니다.

관음법문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법문입니다. 그것에 의해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스승이 하라는대로 하기만 하면 스스로 진보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여러분이 나아지기 위해 일정 기간 나에게 의지해야 되고 그런 다음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찬성이나 반대냐를 놓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선택하게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똑똑해서 이 법문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계속 머물거나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죠. 일단 효과가 있으면 계속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그들은 압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느끼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거나 다른 것을 실험해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또 어떤 걸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걸 금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알 나이가 된 거겠죠. 아니면 이미 할만큼 다 해봤든지요.

물론 난 사람들에게 너무 묶여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형에게 문제가 있으면, “좋아요,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어요”라고 말하고, 어떤 사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신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해도 괜찮고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수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섹스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거나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장애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적 체험은 너무 강렬한 것이라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섹스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술하고 꼭 같습니다. 실제로 해로운 것이지만, 약간만 마시면 죽거나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간 마시고 나면 내일 더 마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승이 독재적이거나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좋고 나쁜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맘대로 체험해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는 동안 이미 해볼만큼 다 해봤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섹스나 술 혹은 자유로운 선택이나 방종한 생활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라고 권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부의 사람들, 그들이 그것을 진정 필요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자들은 이미 오계를 압니다. 그들은 이미 골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그만뒀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약간만 체험하고자 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이처럼 날카로운 이성을 갖게 되어 무엇이 좋고 좋지 않은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는 해보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압니다.

문 (입문자 B): 여러 해 동안 저는 아주 많은 아쉬움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들른 아쉬움이 전부 합해서 50개 내지 70개는 될 겁니다.

스승: 왜 기록이군요.



문: 그 가운데 여러 곳에서 한 달 내지 몇 달간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것처럼 서로 다른 단체나 전통을 대할 때마다 저는 늘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모든 단체들이 그들만의 색깔을 갖게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속한 이들은 그 단체만의 고유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들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전 항상 왜 그런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 수행 때문에 그들 대개는 너무 긴장되어 있거나 너무 풀어져 있었습니

스승: 양 극단이죠.



문: 그러나 여기서 제가 체험한 것은 느슨하지만 근사한 느낌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매우 개방적입니다.



스승: 우리는 중용을 지킵니다. 우리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매일 두 시간 반씩 명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각자가 자유롭게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제를 하고, 그 외에는 독립적으로 자신을 계발합니다. 그래서 난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나를 위해 일하라거나 생활비를 대고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든 여기 와서 3개월이나 6개월, 혹은 2주간, 아니면 얼마가 되었던 무료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한다면, 아마도 나는 손도 까닥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들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깐요. 하지만 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들에게 좋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여러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했다고요.

문 (입문자 C): 저는 우리 단체가 최고의 단체이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스승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체명상을 할 수 있고 선에 참가할 수 있고 스승님을 자주 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게 미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도 어느 인도 스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묻길래 내가 따르는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이 새너제이에 있는 스승님의 채식식당에 갔었다면서 자기도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스승: 예, 사실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몇몇 스승들도 관음법문을 가르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죠.



문: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입문한 후에 스승을 만나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만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한 번만 보았답니다.

스승: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스승을 만나지 않았군요.



문: 다른 사람들과 단체명상을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체명상은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명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이미 충분히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이토록 많은 걸 갖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박수)



스승: 그렇지만 그는 인도에 가서 스승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문: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가봐요. 어쨌든 그는 그런 적이 없고, 또 같은 지역에 몇몇 동료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단체명상을 할 생각은 안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저희가 다같이 모여 명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배려가 정말 너무도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사형, 사저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난관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과 저를 도와준 모든 사형, 사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울먹거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스승: 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단체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보다 경지가 높은 수행자들을 많이 키워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 나도 몇몇 아쉬람들을 경험해봤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단체는 썩 괜찮은 편이고 균형이 잘 잡혀있습니다. 🐼

진정한 스승과 정도(正道)

칭하이 무상사/ 1995년 8월 25일 독일 함부르크 (원문 영어)

신은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할 때에만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스승이 어떤가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이 어떠한만 문제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진심으로 성심껏 최상의 진리를 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최고의 스승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 단계의 스승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최고의 스승을 구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전까지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통을 구하는 마음이거나 호기심이겠죠.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자신의 마음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난 여러분이 옳은 길에 들어섰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의 확신이 여러분을 돕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날 믿을 수 있다면, 신의 이름을 걸고 100% 진실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상의 길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믿어야 할 사람은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직감과 지혜와 성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것입니다. 🍀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 1992년 12월 29일 포모사 핑통 라이이 (원문 영어)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원한다면 온 사방을 헤집고 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난 어느 누구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얼하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언제 다른 곳으로 가야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가기 전에 그곳이 지금의 이곳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여기 앉아 자전거를 좀더 빠르게 몰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온 사방을 헤집고 다니려 한다면 설사 비행기를 탄다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그곳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심이 바닥이 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념도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리저리 살펴보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있든 오토바이를 타고 있든, 아니면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있든 여하튼 우리 역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너무 느리다고, 자기가 탄 교통편이 너무 느리다고 온 사방을 마구 돌아다니거나 무턱대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옳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느려도 그냥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고르려 가기 전에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체험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이 좋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훌륭하다는 것도 알겠죠. (박수) 그것이 유일한 판단 근거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나무 위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지 못하는 건 아마도 여러분의 팔이 짧아서겠죠. 그렇다고 나무에 열매가 달려있지 않다고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따 먹을 수 있고, 여러분의 눈에도 그 열매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에 손이 닿지 않아 그것을 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나무를 타는 대신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열매를 먹고 있고, 그들이 먹는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으며, 여러분의 눈에도 그 열매가 보인다면, 그것을 자신이 먹지 못한다고 나무를 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도 그 열매를 따 본 적이 없고, 그것을 먹는 사람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여러분은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모든 이들이 먹고 있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면 아마도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2년 2월 27일 말레이시아 (원문영어)

정도(正道)에 머물러 있으려면 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유혹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난 여러분이 가끔 실패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뒤에는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하죠. 여러분은 쇼핑을 하듯 가서 수행 단체를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으니까요. 나 자신이 쇼핑을 하러 온 세상을 다녀봤습니다. 만약 이보다 나은 게 있었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진작에 사서 여러분에게 갖다줬을 겁니다. 내 모든 재산과 시간을 바쳐 깨달은 스승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아다녔으니까요. 나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온갖 것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선과 요가 등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고, 하루 한 끼도 먹어봤고, 줄음이 오면 오랜 시간 눈을 뜨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온 세상의 성인이란 성인은 다 만나봤고,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거나 거론할 수 있는 주문이란 주문은 다 외워봤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절도 해봤습니다. 또 축복과 깨달음을 구하러 성지란 곳은 빠짐 없이 다 다녀봤습니다. 최상의 해탈법문을 찾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뒤 마지막에 가서 내가 고른 것이 바로 이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적합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외적으로 보여지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가르침이나 나의 모습, 개성만으로는 사람들을 끌 수 없습니다. 그들 영혼이 갈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된 입문자의 증언

구술: 샤오 쓰슈추 사저/ 포모사 일란
기록 및 편집: 종 원홍 사저/ 포모사 일란

스승님은 무소부재하시다

1987년 제가 입문했을 때 저의 가족은 일란에 살았고 스승님은 신디안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스승님은 저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지요. 제가 스승님께 “스승님, 스승님은 어쩔 그렇게 놀라우세요?”라고 여쭙자, 스승님은 “안 그러면 어찌 감히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겠어요?”라고 대답하셨어요.

스승님께서 일란에서 강연을 하실 때 얼마 동안 저의 집에 머무셨는데, 스승님께서 어쩌나 상냥하게 해주시던지 우리는 마치 한가족처럼 지냈어요. 하루는 제가 스승님을 생각해서 아침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출가자 한 분이 와서, “사저,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세요? 스승님은 아침을 드신 적이 없어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끼리 아침을 먹었는데, 식사를 막 끝냈을 때 스승님께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죠. “뭐 하고들 있어요? 뭘 먹고 있죠? 함께 식사하게 나도 불러주지 그랬어요?” 이처럼 스승님은 언제나 따스하고 온화하셨어요.

저희 집에 머물고 계실 때 하루는 스승님께서 아래층 화장실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왜 2층 화장실을 쓰시지 않으셨어요?”라고 여쭙었죠. 그러자 스승님께서 “사저는 자신이 아래층 화장실을 안 쓰니까 청소도 안하는 군요”라고 농담조로 대꾸하셨어요. 사실 저는 주로 2층 화장실을 사용했고 그곳은 사용한 후에 꼭 청소를 했지만,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아래층 화장실은 청소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스승님은 그런 저의 결점을 지적하심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위해 제가 채워야 할 부분을 알게 하셨지요.

그 기간 동안 스승님은 의학공부를 하러 타이베이에 가 있던 제 아들 방에 머무셨어요. 그런데도 스승님은 학교에 있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나중엔 제 아들도 입문을 하게 되었고, 스승님을 무척이나 좋아하게 되었지요. 한번은 제 아들이 친구에게 스승님 사진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이 하도 난장판이어서 스승님 사진을 걸어둘 만한 곳을 찾지 못했었나봐요. 그래서 친구는 하는 수 없이 스승님 사진을 비어있던 마작(중국카드) 테이블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그 친구의 아내와 제 아들은 사진에 게시된 스승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왜 나를 도박판에 두느냐?”고 꾸짖는 것을 목격했지요. 스승님의 화신이 출현한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루는 그 친구의 아내가 유선방송에서 방영되는 스승님의 강연프로를 시청하다가 문득 스승님의 몸에서 화신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스승님은 여전히 강연을 하고 계셨죠. 그녀는 원래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스승님을 알게된 후에는 스승님의 화신과 관음보살, 그리고 몇몇 높은 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살 칼을 내려놓고 즉시 성인이 된다

1988년에 저는 타이퉁에서 강연하시는 스승님을 돕기 위해 스승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썬변에 있는 강가에 텐트를 쳤지요. 강연이 있기 전날, 환갑이 넘은 그곳 원주민 노인이 스승님을 뵈러 왔는데, 중국말은 못하고 일본말을 했어요. 그 노인은 젊었을 때(일제 점

령기) 군인이었는데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털어놨어요. 두 해 동안에 아내와 두 명의 자식이 죽었고, 남은 자식들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의 동료와 뱀이나 여우를 잡고 뱀고기를 먹으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지요. 그는 담배를 피웠고 술도 먹었어요. 그런 다음 노인은 스승님께 자신의 운명을 점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스승님은 그런 걸 볼 줄 모른다고 하시며 노인에게 과자와 붉은 봉투(중국에는 붉은 봉투 안에 돈을 넣어서 주는 전통이 있다)를 주셨어요. 그 돈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사먹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술과 담배도 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고마워하며 스승님께 하모니카를 연주해 드렸습니다. 스승님은 물론 앵콜 곡을 청하셨구요. 자비롭게도 스승님은 그가 깨달은 스승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기회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노인은 과자와 붉은 봉투를 받고서 곧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개울을 따라 내려가다 곧 되돌아와 과자와 붉은 봉투를 스승님께 돌려드렸지요. 그래서 한 출가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셨습니까?” “저도 스승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가제자가 말했지요. “그럼 채식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자 그 노인은 채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출가제자는 또 물었지요. “그럼 손에 쥐고 있는 그 담배는 어떡하시구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야 간단하지요. 지금 당장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출가제자는 노인을 한번 더 시험했어요. “스승님 밑으로 출가하려면 삭발을 해야 해요.” 노인은 그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은 그의 머리를 깎아 주시고 한 제자더러 그를 강으로 데려가 목욕을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노인은 어찌나 때가 많든지 대여섯 번을 문지른 다음에야 비로소 깨끗해졌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노인에게 입을 옷을 주었어요. 한 출가제자가 그 노인에게 마침 남아있던 신발을 한 켤레 주었는데, 그 사람 발에 꼭 맞았지요.

목욕을 하고 승복을 입자 그 노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스럽고 경건한 기운마저 감돌았지요. 그날 아침 스승님을 찾아와 자신의 운명을 점쳐달라고 하던, 뱀고기로 연명하던 그 비참한 노인의 모습은 간데 없었어요. 물론 이 모든 변화는 중생들의 무량한 업장을 대신 짊어지시는 스승님의 놀라운 사랑과 무한한 능력 덕분이었어요.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그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씻었다. 그는 나의 강연을 들은 지 삼일만에 입문하고 즉시 성인의 대열에 오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살 칼을 내려놓고 즉시 성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저는 스승님께서 미국, 포모사, 캐나다, 일본, 한국, 홍콩, 코스타리카, 브라질, 동남 아시아에서 강연하실 때마다 스승님을 수행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스승님은 한 아름다운 기독교회관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을 주관했던 사람이 강연 중에 스승님의 진동을 느끼고서 나중에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입문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크게 다투었지요. 다음날 그는 스승님께 자신의 슬픔을 토로했어요. 그러자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해주셨어요. “마음쓰지 말아요. 그냥 집으로 사랑을 가져가세요.” 그런 뒤 그의 부인은 태도가 바뀌어서 스승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결국 입문도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나중에 스승님을 집으로 청하기까지 했고, 스승님이 코스타리카를 떠나실 땐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스승님이 떠나시는 걸 보고 그의 아내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진심으로 스승님이 떠나시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시후에는 아무데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거주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님께서 코스타리카에 가자고 하시자 선뜻 따라나섰지요. 거기서 스승님께서 기독교센터 주인 집을 방문하실 때, 이 거주제자도 스승님과 동행했어요. 그 집에는 돌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거주제자가 아기를 보자마자 덥씩 안아주었어요. 그들은 마치 혈육같았지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기가 중국말로 두 번이나 그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아기 부모는 아기가 중국말을 하는 걸 듣고 무척 좋아했어요. 나중에 스승님께서 그 두 사람이 전생에 형제지간이었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데 이생에선 포모사와 코스타리카, 이렇게 따로 따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한번은 미국 새너제이에서 다음 목적지로 급히 떠나고 있었어요. 이륙할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울락 입문자들이 아직 스승님을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지요. “어울락 동수들이 반드시 올거야. 길이 막혀 늦는 게 틀림없어. 여기와서 나를 못보면 무척 실망할 텐데”라고 하시면서 스승님은 계속 탑승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방송에서는 계속 탑승을 재촉하고 있었지만, 스승님은 출구 가까이에서 걱정스럽게 동수들을 기다리셨지요. 마침내 어울락 제자들이 멀리서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스승님은 그들을 맞으러 앞으로 나가셨고 마지막 몇 분 동안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의 광경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어머니와 자식이 만나자마자 곧바로 헤어져야 하는 장면 같았어요. 북받쳐 오르는 그들의 감정과 슬픔 앞에선 아무리 무정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비행기는 이미 엔진을 그르렁대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탑승을 재촉했어요. 스승님은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에 오르셨고,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남편의 죽음

스승님과 여러 나라를 여행한 후 저는 1년 이상 시후센터에 머물렀어요. 하루는 의사인 아들이 전화를 해서 나를 데리러 오는 중이니 서둘러 짐을 싸라고 했어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아들은 우연히 부친의 건강검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간암으로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몇 년 동안 암을 앓아온 상태였고, 그때는 이미 말기에 접어들어서 남은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상인과 다를 없는 생활도 했구요. 남편은 여느 건강한 사람처럼 시장에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시후센터에 왔을 때는 아주 빨리 달리기도 했고, 큰 그릇에 가득 담긴 음식을 푹딱 먹어치우곤 했지요. 그렇지만 건강진단서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죠. 스승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없었더라면 간암을 앓으면서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을 거예요.


죽기 며칠 전에 남편이 제게 묻더군요. “내가 먼저 죽어도 괜찮겠소?” 그래서 저는 “저야 어떻든,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은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요?”하고 대답했죠. 그리고는 정말 아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떻게 아프지 않겠소. 그렇지만 스승님의 은총으로 이 정도 아픈 것쯤은 견딜 수 있다오”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또 물었어요. “당신은 가야한다고 말했는데,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당신이 내면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의 책이나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 스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나와있지 않소. 나 역시 내면으로 체험을 했소.”

죽기 며칠 전에 남편은 갑자기 북경식 발음이 섞인 중국 표준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표준어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전생의 영향이었나봐요.

병원에서 죽기 하루 전에 남편은 며느리와 입문한 간호사에게 스승님의 ‘즉각 깨닫는 열쇠’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며느리는 평소처럼 스승님의 책을 읽어주고 있었지요. 드디어 그의 눈이 감긴 걸 보고 며느리는 책 읽기를 멈췄어요. 그러자 남편이 즉시 눈을 뜨더니 “계속 읽어라”하고 말했어요. 이렇게 저의 남편은 스승님의 신성한 가르침을 들으며 잠들듯이 평화롭게 죽었어요. 저는 남편을 21일 동안 간호했는데, 제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간호해 주었던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우리는 거의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좋은 인연이었고 서로에게 아무런 빛이 없는 게 틀림 없어요.

죽기 3일 전에 남편은 아들에게 그가 제 때에 선철에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 보았죠. ‘남편이 내일 죽고 다음날 화장해서 일란으로 그의 유해를 가져가지 않는 한 아들이 핑퐁 산티면에서 열리는 선철에 참가하기란 불가능해.’ 그 당시 제 아들은 타이쵸에 있는 재향군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도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만일 남편이 정말로 내가 계산한 그 날에 우리 곁을 떠난다면 다음


날 시신을 화장시키고 유해를 일란의 집으로 보내 남은 가족들이 뒷일을 처리하게 하면 되니까 아들은 선참가 신청을 한 아버지 대신 선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구실로 병원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사인 아들이 선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기란 좀처럼 힘들었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저와 아들은 제 시간에 차를 탔고 1992년 산티면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선철에 참가했어요.

남편인 샤오 사형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연이어 돌아가시고, 아들이 카오슝으로 직장을 옮기자 저만 혼자 일란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베이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갔지요. 저는 어린 손녀와 같이 갔는데, 그 아이는 저랑 자면 아주 편안하다고 말했어요. 하루는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스승님을 찾아서 수행을 해야한다고 하셨어요.” 

스승님의 농담


칭하이 무상사/ 1996년 7월 19일 캄보디아 (원문 영어)

출납원을 찾음

한 은행가가 디너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은행에서 출납원을 찾고 있다고 들었네.” 그러자 은행가가 말했죠. “맞아. 그렇다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대꾸했죠. “그렇지만 몇 주 전에 한 사람 채용한 걸로 아는데.” 그러자 은행가가 말했어요. “그랬지. 한 사람을 채용했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그의 모습을 말해 보게나. 그가 어떻게 생겼지?” 그러자 그 은행가가 대답했어요. “음, 키는 5 피트정도고 10만 달러 정도 모자라지.” 

(*역자 주 : 출납원이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의미임.)

의사들은 왜 마스크를 쓰나?

한번은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왜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마스크를 써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어요. “응, 그건,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는 거야.” 




가장 좋은 흥분제

환자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게 아주 자극적인 걸 좀 주세요. 제가 자극을 받아서 아주아주 흥분되고 전투적으로 될 수 있게 말예요.” 그러자 의사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것을 드시고 청구서를 보시면 금방 그렇게 되실 거예요.”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환자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제 장래가 무척 걱정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했어요. “1년 정도 치료를 받으십시오. 치료비는 한 달에 약 500달러 정도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러자 환자가 말했죠. “그렇지만 그건 선생님의 미래에나 보탬이 되지 나의 미래에 보탬이 되진 않잖아요?” 

이 농담들을 오디오나 비디오로 즐기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과도 스승님의 유쾌한 유머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video/joke/116/>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ght_sound/jokes/116/

천상의 옷과 보석의 비밀이 벗겨지다

리 푸케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타이베이에 있는 SM 천의전시장에서 일할 때 나는 매혹적인 천의와 보석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전시장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자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에 묶여 있어서 스승님께서 옷과 보석을 디자인하고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는 것에 회의적이었고 그런 건 수행자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승님께서 이 세상에 진선미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늘 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스승님은 또 당신의 창작활동을 통해 당신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시고 나아가 스승님의 가르침을 펴고 자선활동을 하는 기금을 마련하신다. 그런 식으로 스승님은 이 세상 어려운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동시에 제공하시는 것이다.

하루는 내가 낡아빠진 옷을 입고 끔찍하게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는 꿈을 꾸었다. 이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화려한 천상의 옷과 보석을 걸칠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눈부신 천의를 입고 천상의 보석을 걸치게 되었는데, 그 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빛나고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원에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잠에서 깨면서 나는 “한 생각이 곧 모든 것을 바꾼다”는 말의 의미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스승님은 우리 각자가 일곱 층의 몸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하신다. 영적 수행을 하면 이 몸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안쪽에 있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된다. 스승님은 천상의 옷과 보석을 사용해 수천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신다. 내면을 탐색하는 중에 우리는 천상의 보석이 갖는 모양이나 형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한다. 천상의 보석 가운데 어떤 것은 실제로 어떤 경지의 영체를 본따 만들었다. 가끔 동수들 중에는 천상의 보석을 보거나 착용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의 영광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천의와 천상의 보석을 디자인하는 일을 포함해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 로다.

스승님께서 늘 옷을 바꿔입으시는 것도 우리 내면에 있는 다채롭고 멋진 천국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체가 우주 내에 있는 어떤 행성을 여행하게 되는 날, 여러분은 눈에 익숙한 천의를 입고 있는 천상의 여왕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창조자다. 그러기에 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끔찍한 형상을 창조해서 그 안에 자신을 가두게 될 지 모른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취해서 낮은 경지의 세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스승님은 당신의 언행과 복장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은 모든 영혼이 영원한 해탈을 갈망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 않고 하신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명예에 누가 될 지도 모르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사게 될 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가슴에서 나온 시:

당신의 아름다운 눈은 내 잠재의식의 늪을 꿰뚫고
깊이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세상을 초월한 당신의 예술작품은
멀지만 영광스러운 나의 고향을 상기시킵니다.
길 잃은 영혼을 되찾기 위해 온 세계를 가로지르며
끝없이 바뀌는 당신의 모습은
끝없이 바뀌는 인간의 마음을 교화하고,
지복에 겨워 춤을 추는 나의 영혼은
환상의 구름 위로 솟아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文·森·華·德


리 엔메이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크리스의 아내 애니는 아들과 딸이 차 사고로 목숨을 잃자 아이들이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며 큰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크리스마저 우연한 사고로 죽게 되자 그녀는 한층 심한 타격을 받는다. 남편은 천국에 갔는데도 그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을 하고, 그 결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양심의 가책에 크게 시달린 나머지 자기 기억의 늪으로 깊이 빠져든 그녀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크리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녀를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른바 ‘끝없는 지옥’이란 곳에 영원히 갇혔을 것이다. 거긴 끔찍한 곳이다. 아무도 거기에 빠져버린 영혼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연젠가 스승님께서 이 영화에 대해 이런 언급을 하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곳으로 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안 좋게 느끼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때문이죠.”)

남편 크리스가 아내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밝은 면을 일깨우려한 것은 너무도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다. 그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그 역시 그런 분위기에 오염되어 거기에 갇혀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의 힘이 충분치 않거나 의지가 강하지 못하거나 그의 진동이 너무 낮다면 순식간에 그곳의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건 깨달은 스승이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구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승의 힘이 충분치 않으면 커다란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는 엄청난 사랑이 요구된다. 이 영화 속의 남편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아내를 구한다. 그의 사랑은 정말 위대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기억들을 지우거나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동료 수행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기억들, 끝없는 윤회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삶을 거치며 새겨놓은 기억들을 말끔히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 지우개의 이름은 관음법문이다. 우리가 컴퓨터를 조작할 줄 알면 내부의 데이터를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명한 우주적 법문은 매우 과학적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남아 있는 기억들의 잔상에 사로잡혀 계속 윤회하거나 스스로 고통스런 차원에서 고통당하는 대신 이 관음법문 ‘지우개’를 사용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깨끗이 하는 게 좋다.

이 영화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란 것이 사실 우리 마음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컴퓨터로 제작된 일부 영상은 너무도 생생해서 실제처럼 보인다. 그래서 오스카영화제에서 시각효과상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는 사후세계와 특히 사후세계에 있는 몇몇 흥미로운 존재들, 즉 주인공의 아들과 딸, 천사와 저승사자를 그리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영화는 진실로 사랑의 본성과 사후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다. 

칭하이 무상사 최신 비디오 테이프

<영문판>

665 스승님과 함께 한 할로윈 주말 (1, 2)

미국 LA센터 단체명상 1999년 10월 30일~31일

<영어+ 중국어 자막>

631 창조의 목적

영국 런던 단체명상 1998년 3월 10일

<영어+ 슬로베니아어 동시통역+ 중국어 자막>

660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

슬로베니아 루블리아나 강연 1999년 5월 26일

<영어+ 줄루어 동시통역+ 중국어 자막>

668 보이지 않는 통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강연 1999년 11월 26일

<중국어+ 한국어 자막>

319 같은 방법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포모사 타이난 센터 단체명상 1993년 2월 21일

554 수행자는 진정 자유롭다

캄보디아 레이징 센터 단체명상 1996년 7월 19일

466 신실해야 신을 볼 수 있다

포모사 시후 센터 단체명상 1995년 1월 8일

<영어+ 한국어 자막>

537 지성의 힘을 신중히 사용하라 (1, 2)

미국 로스앤젤레스 단체명상 1996년 3월 14일

584 삶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꾸자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4) 1997년 5월 9일~12일

547 육식의 부작용

캄보디아 프놈펜 석가탄신일 국제 선칠

1996년 5월 11일~17일

<영어+ 스페인어 자막>

582 곳곳하게 수행의 길을 가라

호주 시드니 국제 선사(2) 1997년 5월 9일~12일

608 수행 진보의 비결

미국 워싱턴 국제 선사(5) 1997년 12월 24일~27일

<영어+ 인도네시아어 자막>

260 이 세상 너머의 신비

미국 유엔 강연 1992년 6월 26일

<영어+ 몽고어 자막>

623 자신의 신성을 인지하라 (1, 2)

미국 캘리포니아 엘바인 대학 1998년 6월 2일

<영어+ 일본어 자막>

과거를 돌아보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칭하이 무상사의 최근 오디오 테이프

중국어로 다시 편집된 오디오 테이프 (이야기 판)

CS5 (테이프 5개)

나로빠 이야기 (1~5)

포모사 산티엔 1990년 6월 29일~ 7월 6일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wisdom@m2.dj.net.tw

대만 우체국 송금 계좌번호: 19259438

수취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스승과 나

칭하이 무상사 (원문 영어)

의사가 고통에 싸여 소리치는 것은 괜찮지만,
성자가 고뇌에 싸여 소리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
그 모든 게 십자가의 고난을 위한 구실.

너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승에게 해놓고
그녀가 그것을 견디길 진실로 바랄 수 있는가?
성자의 가슴에도 심장은 고동친다,
너희의 심장과 똑같이.
그의 육체를 이루는 것은
다른 모두와 같다.

스승은 요청받은 것은 무엇이든 한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가 편안히 즐길 때
그는 반드시 고통받아야 한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영생을 누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창으로 찔러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서
그가 고통받게 만들어야 했을까?

아, 가장 잔인한 자 인간이여!
온갖 구실을 붙여 살해하는구나.
자비로운 신의 아들이
너희 손에 죽었다
너희 자신을 어떻게 심판하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스승의 심장을 계속 난도질한다,
그를 비방하고, 그의 감정을 극한으로 고문하며,
그를 외면하고, 너희의 결점을 그의 잘못이라 탓하면서.

너희는 거울에 비친 부정한 형상을 비난한다.
그러나 진정 모르는가?
그것이 너희 자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길 좋아한다면
그만 멈추고 숙고해보라.

너희와 스승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그에게 상처를 주면 머지 않아
결국 너희도 아픔을 느낄 것이다.
너희의 영혼 속에서, 너희의 영(靈) 속에서
그녀와 너희는 하나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 성찰하라,
너희가 추구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
너희 양심이 깨어나는 날
너희는 슬피 울리라.

너희는 통탄하며 가슴을 치리라.
그땐 극락마저도 그것을 참지 못하리.
그러나 여전히 늦지는 않았다.
너희와 나는 영겁속에 있다.
스승은 온 인류를 위해 고통받음을 알라,
너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안다.
그러니 지금 그만두라!
자신의 시야를 제한하지 말라.
스승은 같으나 또한 같지 않다.

그를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그를 알 수 없으니.
보이는 그것이 진실은 아니다.
환영임을 알면서도 스승은 여전히 그것에 상처받는다.

잔인해지지 않도록 하라,
스승은 너희보다 훨씬 더 민감하니.
하지만 그녀는 너희를 위해 그것을 참아내야 한다.
그러니 감사는 못할 망정 최소한 비난은 마라.
스승은 진실로 너희의 유일하고도 최상의 친구이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를 맞아주는 이 바로 스승이요,
이생에서 다음생으로 넘어가는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는 이 바로 스승이다.

그러니 그를 비방하지 말라.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
너희는 그를 다시 마주하리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실수하는 것이다.
그는 영원히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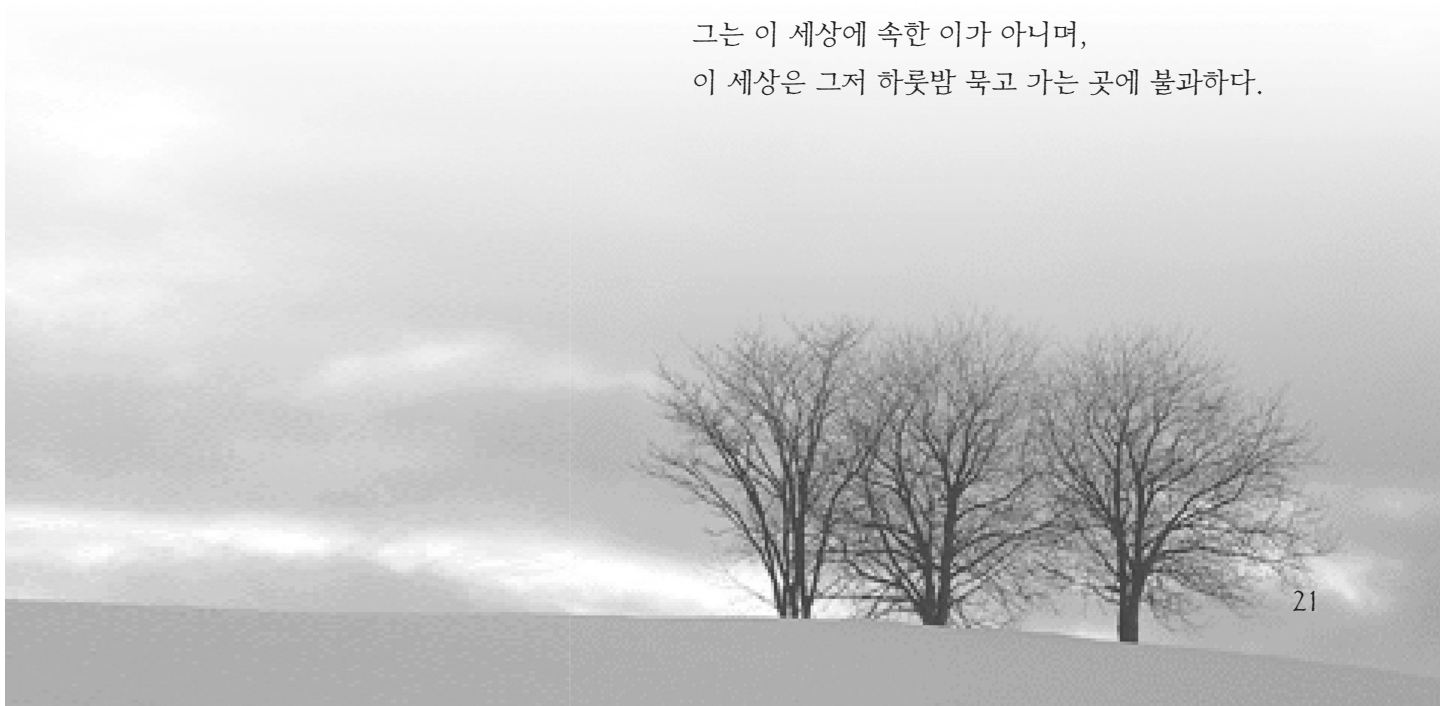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가 그러하듯이 신의 아들도 고통받지만,
그는 온 우주를 가졌고
왕 가운데서 최고의 왕이다.

너희가 그를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이로움이 있으리.
그리고 그를 미워한다면
너희가 그 미움을 받으리.

내면으로 들어가 참 지식을 깨우치라.
내면으로 들어가 참 해탈을 발견하라.
겉모습을 보고
스승이나 다른 이를 비판하지 말라.

왜 결함을 들추어내는데 시간을 낭비하는가?
그것도 남의 집의 결함을!
너희 자신의 결함을 찾아 고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너무 늦기 전에!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 아는 게 도무지 없다.
그러니 스승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이가 아니며,
이 세상은 그저 하룻밤 묵고 가는 곳에 불과하다.



메모

칭하이 무상사 (원문 영어)

친애하는 신에게,

가능하면 내게 보내줘요.

*기댈 곳이 정말 필요할 때
머리를 기대고 울 수 있는 어깨.

*잠을 푹 자기 위해
이따금씩 하는
(밤에 하는 게 더 좋다)
발 마사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애정 어린 친구.

*그리고 내게 오는 이는 누구나
충실하고 다정하게 해줘요.
안 그러면 그만뒀요.
이제 선물은 그만이요.
(우울한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라고
나를 몰아부치지 말아요.
기상천외한 일들과 말도 안되는 다툼으로
사생활은 엉망이 되고
내 인생은 비참하고 슬픈 게 되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죠,
지난 십 년 간.
그러니 이제는 쉬게 해줘요.
한번만 봐줘요.
그래 즐겨죠?

속임수는 싫어요.
억지로 일하는 것도 싫고요.
당신은 내 머리가 굳다고 말하겠죠.
어쩔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알아온 이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 내 요구를 들어주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요.



당신은 아시나요?

칭하이 무상사 (원문 어울락어)

봄이 오고 꽃이 필 때
산들바람이 당신의 머리결에 싱그런 내음을 풍기고
진홍빛 날개가 청명한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나 당신을 사랑함을 아시나요?

황금빛 여름이 순백색 구름의 세레나데를 연주하고
황제의 연못에 연꽃이 만개할 때
당당한 포인시아나의 양홍빛 꽃잎이 동쪽 성벽에서 눈깜짝할 사이에 떨어져내릴 때
나 당신을 사랑함을 아시나요?

가을이 오고 낙엽이 창가에 휘날릴 때
적막한 강가에 플루트의 멜로디 나지뉘하게 울려퍼지고
바깥 싸늘한 정원에 잠시동안 안개가 덮일 때
나 당신을 사랑함을 아시나요?

혹한의 겨울이 기승을 부리고
희미한 안개가 그 순간을 가릴 때도
우리는 장엄하고 환희에 넘치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 함께 항해를 할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 당신을 사랑함을 아시나요?

비록 시작은 힘들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사랑의 본질은 영원하고
사랑의 꽃은 결코 시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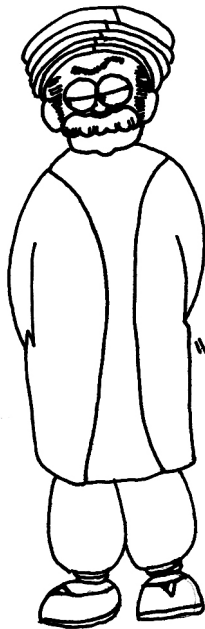
놀라운 보호력

칭하이 무상사/ 포모사 시후 1988년 9월 24일 (원문 중국어)



인도의 한 농부가 소를 끌고 높은 산을 하나 넘게 되었어요. 그 소를 팔아야 했거든요. 그 농부는 소를 끌고 사람이나 짐승을 잡아먹는 굶주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숲을 통과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사자한테 잡아먹힐까봐 겁나지도 않아요?” 그러자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도 안 겁나요! 우리 스승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요. 전 오늘 가야만 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 소를 사겠다는 사람과 미리 약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야만 해요. 내일까지 기다릴 순 없어요.” 이웃 농부들은 무척 걱정이 되었지만 그를 말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농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는 소를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속으로 오불을 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정말로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에게 화가났을 때 여러분이 내는 소리와 꼭 같은 소리였죠. (웃음) 그런 다음 정말로 사자가 나타나더니 그들 옆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그 사자는 정말이지 그 소를 단숨에 잡아먹고 싶었는데, 웬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으르렁대며 ‘희생양’이 될 소를 따라가기만 했죠. 그



리고 농부는 계속 오불을 외며 걸었어요. 한쪽에는 소가 끌려왔고 다른 한쪽에는 사자가 달려왔죠. 그 셋이 나란히 걷는 품이 마치 좋은 친구사이 같았어요. (웃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전혀 달랐어요. 농부의 생각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착해서 이 소를 얼른 팔아야겠다’는 것이었고, 소의 생각은 ‘그가 이번에도 괜찮은 거래를 했군!’ 하는 것이었

으며, 사자의 생각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바로 눈 앞에 두 개의 고기덩이가 있는데 손도 못대고 있으니’ 하는 것이었어요. 셋은 같이 걸으며 제각기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사자가 농부나 소 가운데서 아무 것도 잡아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마을에 도착할 시간이 되었어요. 멀리 집들이 보이자, 농부는 반가운 생각이 들었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날 도와주겠지.’ 사람들이 사자를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하자 안심

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자 스승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불을 외우며 스승께 기도를 했지만 이제 그만 스승을 잊은 거예요. 그러자 때를 놓칠새라 얼른 사자가 달려들었어요. 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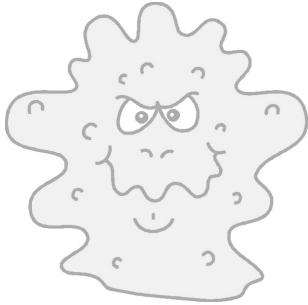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고 스승을 잊게 만든 것이죠.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린 바깥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믿을만 하다고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사자가 곧 덮쳐서 거의 그를 먹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그는 다시 오불을 외웠어요. 그러자 사자가 다시 꼬박을 못했죠.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셋은 다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숲과 마을의 경계선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이 숲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사람들의 구역이라는 걸 사자는 잘 알았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 실망스럽더라도 그냥 숲으로 돌아갈 밖에. 사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어요. ‘잊어버리자!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날인가보다. 그냥 집애나 가자.’ (웃음)

오불은 정말 막강합니다! 스승한테 신실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기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느 스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들은 바로는 그의 아들이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죠. 어느 날 그가 아파서 가축들을 돌보러 가지 못하자 세 명의 도둑이 이를 알고 그의 가축들을 훔치려 했어요. 그들이 가축에게 접근하려는데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몸집이 큰 다섯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이 손에 든 방망이로 이 세 도둑을 죽도록 두들겨 뺐어요. 도둑들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맞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태가 좀 나아지자 그들은 또다시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엔 운이 없었나 봐. 내일 다시 해보자.” 그런데 다음날에도 전번의 그 다섯 장정들을 만나 또다시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정신 없이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시도했을 때도 여전히 그 다섯 명의 남자들에게

맞았는데, 이번에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정말이지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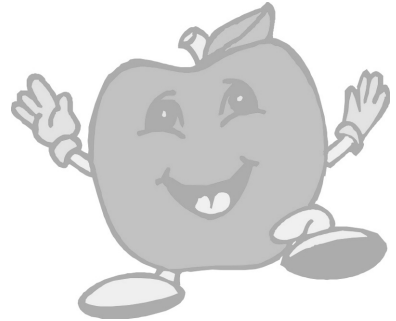
완전히 낮이 나간 그들은 몰래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 안을 살짝 엿봤어요. 그런데 거기엔 아파서 누워있는 평범한 남자 한 사람 뿐이었죠. 다섯 명의 장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들은 살금살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침대 밑에 사진이 하나 놓인 게 보였어요.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이의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매일같이 우리를 두들겨 뺐던 그 다섯 사람이잖아! (웃음) 그 다섯 명의 남자와 똑같이 생겼는 걸!” 그 다섯 사람이 모두 똑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잔뜩 겁에 질린 그들은 아픈 사람에게 물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앓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한 삼사일 되었습니다. 아파서 가축들을 돌보러 가지 못했지요.”

그 세 명의 도둑은 또 물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니까?” “그 분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그 분은 전지전능하세요. 생사를 초월하셨고, 천백억 화신을 나투실 수 있고, 어디든 안 계시는 데가 없죠.” (웃음) 그제서야 그들은 왜 그 다섯 명의 남자가 똑같이 생겼었는지를 이해했고, 정말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했죠. “우린 정말 무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의 가축들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섯 명의 남자로 나타난 당신의 스승한테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몸에 뭔가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무슨 불치병이라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가축을 기르는 그 남자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게서 흠쳐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스승님께 진심으로 참회한 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 다음 그 세 명의 남자는 회복되었고, 나중에 입문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십 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예요! 



기생충학과 채식

수 웨이린 사저 / 포모사 타이베이



들어가며: 어떤 파티에서 한 채식주의자 숙녀가 채식요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녀 옆자리에는 한 낯선 신사가 앉아있었는데, 그도 역시 채식요리만 먹고 있었다. 그 신사가 숙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채식주의자인가요?” 숙녀가 대답했다. “네. 당신은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전 아닙니다. 저는 육류검사관이죠.”



채식주의자이자 의학도인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채식이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가를 더욱 깊이 인식하며 그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과학적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채식의 중요성과 인과관계, 그리고 육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초래하는 악영향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옛날부터 전통 한의학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힘이 부정적인 힘을 막아준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예방하는 것이 치료에 힘쓰는 것보다 낫다. 만일 인류가 몸과 마음, 정신에 유익한 식사, 올바르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채식,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한다면, 우리는 해로운 독성물질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은 적절한 영양분 공급과 건강유지를 위해 육식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육식을 옹호한다. 그러나 병원에 복적대는 환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육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실례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고기를 먹는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증상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육식을 함으로써 여러 질병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저명한 채식주의자 내과전문의인 J. H. 켈로그 박사가 채식연회에서 했던 발언을 상기시킨다. “채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더 많은 진실을 알고 난다면 수저를 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 및 감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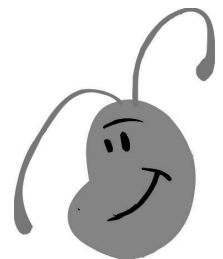
숙주와의 관계에 따라 기생충은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인체의 표면에 기생하는 체외기생충으로 ‘이’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주의 신체적 강(腔:복강, 구강 등 움푹한 구멍)이나 내장, 기관, 세포에 기생하는 체내기생충으로 촌충, 요충 등을 포함한다.

후자(체내기생충)는 신체의 내부 강(腔)과 장기에서 광범위하게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숙주의 생활습관과 식생활이 기생충의 감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소, 돼지, 물고

기, 새우 등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의 살과 내장을 섭취하는 것은 인체가 기생충에 감염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가장 보편적인 감염경로는 입을 통한 것인데, 예를 들어 회충과 편충의 알이나 다른 기생충의 성숙된 포낭과 유충은 오염된 음식이나 식수를 통해 인체에 들어온다. 식물을 통한 감염은 주로 채소를 날로 먹는데 기인하며, 이는 쉽게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면 다른 부류의 기생충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그밖에 가축배설물이 다양한 기생충의 감염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피부접촉이나 모기, 파리가 앉은 음식과 음료, 사람과 동물의 배설물, 오염된 식수 등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인체에 유해한 기생충의 또다른 사례는 장내기생충이다. 장내기생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선충류(연충): *Ascaris lumbricoides* (회충), *Enterobius vermicularis* (요충), *Ancylostoma duodenale* (유럽 십이지장충)
2. 흡충류: *Clonorchis sinensis* (중국 간디스토마), *Fasciolopsis buski* (장디스토마)
3. 촌충류: *Taenia solium* (돼지촌충), *Taenia saginata* (소촌충)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 대장아메바(*Entamoeba coli*) 등의 원생동물(단세포동물)은 인체의 강(腔)에 침투한다.



기생충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용을 통해 숙주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1) 영양분 탈취작용: 기생충들은 숙주가 섭취한 음식의 양분을 흡수함으로써 생존하고 성장하며 생식 활동을 한다. 이것이 기생충의 가장 보편적인 악영향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어 내장 안에 기생하는 회충과 돼지촌충은 내장에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므로 숙주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기계적 작용: 기생충들은 차단, 압박, 직접적인 상해 등으로 숙주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체 장기에 기생하는 촌충이 큰 무리를 지으면 장이 막혀 장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유구낭미충(*cysticercus cellulosae*)이 뇌조직에 압력을 가하면 간질이 발생할 수 있다. 장디스토마는 흡반을 사용해 장의 점막에 붙어하는데, 이로 인해 장의 염증이나 출혈, 심하면 장조직의 괴사가 생길 수 있다.

3) 화학적 작용: 기생충의 활발한 신진대사 산물과 배설물, 분비물 등과 죽은 기생충한테서 나오는 화학성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인체에 손상을 입힌다. 예를 들면 원생동물인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는 조직분해성 효소를 분비해서 장 점막과 점막하조직(장내의 세포점막과 하부조직)을 용해시키는데, 이는 종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직 내 유충의 분비물이 양적으로 많아진다면 과민성 쇼크를 유발하는 심각한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기생충들은 인체의 혈액을 빨아먹는데, 흡수 시 분비액을 주입 시킴으로써 혈액을 묽게 희석시키고 국부적인 과민증을 유발시켜 조직에 염증을 초래한다.

숙주의 방어력이 기생충의 침투력보다 클 때는 조직에 침입한 기생충이 완전히 박멸되거나 인체에서 추방된다. 그런데 숙주의 방어력이 일시적이거나 기생충의 침투력과 동등해지면 소수의 기생충들이 인체에 기생하고 번식한다. 이 경우에는 인체에 그다지 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임상적인 증상도 초래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생충이 병원균(질병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운반체가 된다. 그리고 숙주의 방어력이 기생충의 침투력보다 약해지면 병리학적인 변화가 명백해지고 임상적인 증상이 발생한다. 즉 숙주가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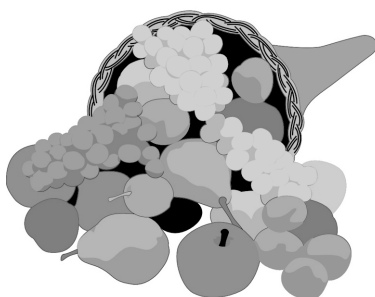
인체의 소화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촌충은 돼지촌충(유완조충이라 불리기도 함), 소촌충(무완

조충이라 불리기도 함), 난쟁이촌충 등이다. 지금부터는 돼지촌충(Taenia solium)을 예로 들어보자. 인체의 소장에 살고 있는 성충은 촌충병(tapeworm disease)을 일으키고, 유충은 낭미충(cysticerci)이라고도 불리는 데, 돼지나 인체의 피부조직 속에 살며 낭미충증(cysticercosis)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낭미충을 가지고 있는 돼지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인체의 소화기관으로 들어온 낭미충이 담즙의 자극을 받아 머리를 수축시키고 장 점막에 달라붙는다. 그런 다음 목부분에서부터 촌충의 편절(체절)이 계속 자라나 두세 달만에 성충이 된다. 대개 인체에는 한 마리의 성충이 존재하지만 몇 마리 더 있을 수도 있다. 성충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다. 인체에 기생하는 촌충의 유충은 낭미충증(cysticercosis: 촌충 유충 감염증)을 일으키는 데, 인체의 어느 부위에 기생하느냐, 얼마나 수효가 많으냐에 따라 성충보다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인체에 기생하는 낭미충(촌충의 유충)의 숫자는 한 마리에서 수만 마리에 이른다. 유충이 기생하는 인체부위는 피하조직, 근육, 뇌, 심장, 간장, 폐, 복막 등이다. 이들이 피하조직과 근육에 기생했을 때는 피하결절이나 혹이 여러 개 생겨나는데, 주로는 머리와 몸통에 발생하고, 팔다리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개 약간의 근육통 외에 그다지 뚜렷한 증상도 없다. 촌충의 유충이 뇌에 기생하면 머리를 압력해서 두통, 욱지기, 구토, 인사불성, 시력저하, 간질 등을 초래한다. 심하면 반신불수(국부마비), 하반신 마비, 실어증(언어불능상태), 정신장애 등도 나타난다. 기생충이 눈에 기생한 경우는 시력이 영향을 받으며 벌레가 움직이는 모습이 빈번히 관찰된다. 심각한 경우에는 실명이 되기도 한다.

아메바이질(Amoeba dysenteriae)이라고도 불리는 이질아메바(Entamoeba histolytica)는 인체의 결장에 기생한다. 이들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장벽을 뚫고 혈류에 침투하여 아메바성 이질(amebic dysentery)과 다양한 형태의 아메바증세(아메바로 인한 감염증)를 초래한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광우병’이라는 것과 홍콩의 닭 페스트, 그밖의 다른 가축, 가금류의 오염사례로 인해 기생충과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경각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육식을 그만두고 영양가 있는 채식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채식주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추세일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의식의 각성이기도 하다.



전 세계 채식식당

미국 뉴욕

비가 베지테리언 푸드 (Viga Vegetarian Food)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가공식품점)

57-05 136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5, U.S.A.

전화/ 팩스: (718) 886-3707

전 세계 채식식당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유전공학—신이 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칭하이 무상사/ 포모사 시후 1995년 6월 10일 (원문 영어)

최근 들어 여러 끔찍한 과학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를 섞는 등의 일이지요. 그 결과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거나, 혹은 반은 어류고 반은 사람인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어서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위해서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이런 과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연구라는 미명하에 미친 짓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면 DNA나 그 밖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죽

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DNA를 보관해 두었다가 또 하나의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가 죽었는데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요. 아니면 그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지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면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선의 길이지요. 그외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신나간 것 투성이입니다. 심각한 오염이나 공해 등이 다 그렇죠.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

칭하이 무상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1994년 8월 20일 (원문 영어)

오늘날에는 과학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DNA를 수집해서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듣게 되죠. 정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지금 거의 성공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딸이 한 명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애가 죽거나 다른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어서 그 딸 아이의 DNA를 뽑아 어딘가에 잘 보관해 둡니다.

그럼 나중에 그 DNA로 복제를 할 수 있죠. 완전히 똑같은 아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대중: 예!) 여러 쌍둥이가 생기는 그런 자연스런 과정을 똑같이 재연하는 겁니다. 하나의 수정란을 둘 혹은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몇 개의 영혼이 있는 것일까요? 원래는 한 영혼, 한 사

람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돼서 여섯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면 여섯 개의 영혼이 거기에 들어간 거라고 해야 하죠. 맞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힘, 그러니까 우주의 영혼은 뭐든 가능한 건 다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개인이라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만일에 그 아이가 죽거나 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DNA를 어딘가에 저장해두죠.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장치 같은 곳이에요. 그런 다음 죽은 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한 사람만 있어야 하는데, 죽은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더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있는 거죠.


영혼은 몸에서 분리됩니다. 마음과도 분리되고 매일 우리가 주워 모았던 그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우린 그저 이 도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는 관찰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몸에 묶여있다거나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신체 안이나 어떤 도구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그냥 파멜라나 칭하이라 불리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해버리죠.

난 여러분과 내가 동일체라는 것을 명백히 압니다. 거기엔 '나'와 '너'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도구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든 설명해보려고 애쓸 따름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대중: 예) 좋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쌍둥이의 경우에도 단지 한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개별 영혼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하나의 도구가 생기면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또 다른 영혼이 태

어났다고 말합니다.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는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각각의 도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합니다. 그 전체가 도구들을 통해 약간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동하는 건 두뇌입니다. 영혼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는 다 같은 전기입니다. 하지만 모양과 밝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건 도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안에 흐르는 전류는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질투하며 내 전기가 네 전기와 다르다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밝기의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은 다 같은 전류니까요. 각자 다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별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양성이 존재하니까요.

전구가 수명이 다해 완전히 나가버려도 전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기가 죽는 건 아니니까요. 죽는 건 전구뿐입니다. 전구가 망가진 겁니다. 끝난 거죠. 하지만 전기는 걱정 없습니다. 조만간 다른 전구를 찾아서 다시 빛을 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죽을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배가 고플까봐 근심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를 이 무지한 게임 속으로 끌어들이고는 같이 고통받습니다. 

누가 이 몸에 사는가?


칭하이 무상사/ 싱가포르 1997년 4월 26일 (원문 영어)

문: 스승님, 사람들이 요즘 생체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복제되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 아들이 묻더군요.

스승님: 그건 과학자들에게 물어야죠. 난 인간을 복제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웃음) 난 신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DNA로 다시 시도해보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우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들이 사람을 복제하는데 성공하면 그때 복제인간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스승님과 대중들 웃음.)

그건 마치 인공수정을 시켜 쌍둥이나 또 하나의 아

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누가 되었던 그렇게 하겠죠. 떠도는 영혼이나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누가 그 몸에 살고 싶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성격에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몸에 두세 영혼, 혹은 여러 다른 성격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육신이 없는 영혼, 귀신들이거나 동시에 같이 들어온 영혼들이죠.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그 몸을 차지 하려고 싸우거나 같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 우스꽝스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하루는 괜찮았다가 다음 날은 이상해진다든지

한꺼번에 두 명의 애인을 갖는다든지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애인을 두 명 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스승님과 대중들 웃다.) 어찌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두 명의 귀신 말을 듣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관 음 웹 사 이 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 - 중국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 - 중국어/ SMCH 서점)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kr> (한국 - 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kr> (한국 - 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 - 일본어)
<http://www.Godsdirectkontak.org>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 - 영어, 중국어, 한국어, 어울락어)
<http://mason.gmu.edu/~lduan/Godsdirectcontact> (미국 - 영어)
<http://members.tripod.com/~Godsdirectcontact/> (미국 -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 -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번역자 및 간체자)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 - 영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 (미국 - 영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 - 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 Windows Media Player Audio & Video 지원)
<http://www.members.xoom.com/meditations/GodsDirectContact.html> (미국 -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 - 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 - 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 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 Real Audio service 제공 -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 - 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 - 독일어)
<http://freespace.virginnet.co.uk/smch/ma/Godsdirectcontact/Persian.htm> (영국 - 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1stennel (헝가리 - 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 - 스웨덴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2000> (폴란드 - 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영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
 뉴스그룹: lovesrc@Godsdirectcontact.org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받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중국어 번역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news/116/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chinese/116/> (미국)
<http://Spiritual-Discovery.org/ch/news/116/index.htm> (미국)
 중국어 간체자:
http://Spiritual-Discovery.org/gb_chinese/news/116/index.htm (미국)
http://godsdirectcontact.com/eNews/chinese/116/index_gb.html (미국)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english/116/>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16/> (미국)
<http://godsmediatecontact.net/news/news116/> (미국)
<http://Spiritual-Discovery.org/eng/news/116/index.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16/index.htm> (포모사)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lac/news/\(VNI,VPS,VISCI,VNU활자\)](http://www.godsdirectcontact.org/aulac/news/(VNI,VPS,VISCI,VNU활자))
[http://godsmediatecontact.net/aulac/n116/\(VNI활자\)](http://godsmediatecontact.net/aulac/n116/(VNI활자))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spanish/> (미국)
 한국어:
<http://www.godsmediatecontact.co.kr/116/index.htm> (한국)
 일본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kannon/news/newsindex.htm> (미국)
 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kontak.org/eneews.htm> (미국)
 프랑스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News/index.html> (프랑스)
 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

전 세계 연락처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Mr. Christopher Luccarda 27-21-789-2033
llove@earthling.net
더반 Mr. Suresh Patel 27-31-262-5111
surindie@intekom.co.za
이스트 런던 Mr. Anthony Sabbagh 27-437-352575
sabbagh@iafrica.com
요하네스버그 Mr. & Mrs. Chen Tai Lin 27-11-6404806
jhbcenter@pchome.com.tw
Ms. Sonya Gusson 27-11-6229455
sonya_usa@hotmail.com
토고 센터 228-222864
smtogo@yahoo.com
228-215551
모리셔스 Mr. David Chine 230-208-1758
포르투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maurice@email.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oz 591-337-2039
adamun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브라질:

벨렌 Mr. Wei Cheng Wu 55-91-223-9414
Ms. Salma Casierira Alvarez 55-81-3262912
레시페 55-11-228-7029/3884-3155
상 파울루 브라질 센터 55-11-227-4690/5579-1180
연락인 사무실 brcenter@hotmail.com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ezapata@entelchile.net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코스타리카:

산호세 코스타리카 센터 506-268-8666
juanbautistams@yahoo.com
Ms. Laura Chen 506-220-0753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멕시코:

과나후화토 Mr. & Mrs. Jose Luis Sanchez Vargas 52-4-7436120
멕시코 시티 Ms. Sylvia Lagrange 52-65-684575
quanyin@telnor.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8-852-1256
tecenter@ragnatela.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78387
mttycenter@starmedia.com

파나마: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페루:

쿠스코 Mr. Varovski Velarde 51-84-246256
varovski@mixmail.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terra.com.pe

푸노: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Mr. Victor Carrera 51-1-2657429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엘살바도르:

Mr. & Mrs. Ming-Sen Lu 503-2746282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obocus@tstt.net.tt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xdang@powersurf.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Ms. Wei Zhong 1-519-438-3702

몬트리올:

센터 high_way@juno.com
Ms. Euchariste Pierre 1-514-277-4655
Mr. Hung The Nguyen 1-514-277-2717
1-514-494-7511

오타와:

Mr. & Mrs. Nai-Chi Hsu thehungnguyen@iprimus.ca
Mr. Le Lam 1-450-647-4871
1-613-260-1698

토론토:

Mr. Armand Laplante lam.le-quanyin@home.com
센터 1-613-745-6050
Ms. Diep Hoa 1-416-503-0515
1-905-897-0650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Ms. Sheila Coodin hiepham@home.com
1-604-541-1530

미국:

Ms. Nguyen Thi Yen jsung@aicompro.com
Ms. Sheila Coodin 1-604-541-1530
sheila@prismnet.bc.ca

애리조나: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aol.com

아칸소: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Vegetarian House 1-602-264-3480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arcenter@juno.com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Dong Phung SanGabriel99@hotmail.com
Ms. Tina Polny 1-714-960-4518/960-4568
qin-na.polny@mindspring.com

*샌디에이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andpam@earthlink.net

*콜로라도: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Mr. & Mrs. Tang Thi 1-619-268-8651
KHOALUONG@aol.com

*플로리다: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텍사스: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andpam@earthlink.net

*유타: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아ризона: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캘리포니아: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juno.com

*플로리다: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s. Trina L. Stokes 1-941-482-7542
tts77@aol.com

*텍사스:

Mr. & Mrs. Tze-Chen Chen 1-407-321-8297
1-407-771-8895

*유타:

tze-chen.chen@convergys.com

*조지아: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nt@aol.com

*하와이: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일리노이:

Ms. Andrea Seu Chow Lee 1-808-599-4339
andreamch@hotmail.com

*인디애나:

Mr. & Mrs. Julian L. Chen 1-630-416-3821
SMillinois@aol.com

*캔터키: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루이지애나: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메사추세츠:

Mrs. Jon L. Fontenot 1-504-483-3234
jfontenot@hotmail.com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캘리포니아: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Ms. Cynthia A. Lombardo 1-508-388-4306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HughMDCenter@yahoo.com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ce94@hotmail.com
미시간 Ms. Susan Manturuk 1-616-588-6341
manturuk@torchlake.com
*남 미시간 센터 helenzeng@yahoo.com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juno.com
미주리: Ms. Mary E. Steck 1-573-761-9969
*제퍼슨 MSteck5208@aol.com
*롤라 Mr.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trobert@yoda.unl.edu
네바다: Ms. Helen Wong 1-702-242-5688
*라스베가스 센터 1-702-209-1651
c_newjersey@yahoo.com
뉴저지 Mr. & Mrs. Nghiem The Trung 1-609-667-3829
albert_nghiem@hotmail.com
Mr. Chang-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뉴욕: Mr. & Mrs. Zhihua Tung 1-718-837-488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ccess@coachdebra.com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von@swoca.net
Mr. Gilbert Rivera 1-513-381-4554
wisdme@y@aol.com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center@hotmail.com
Mr. & Mrs. Alister Phuoc Minh Pham 1-503-642-1252
AlisterPhuocPhaml@juno.com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626-5546
Diep.Ngu.PA@Juno.com
Mr. Shi-Tao Yeh 1-610-640-0463
smchpa@juno.com
텍사스: Mr. Dean Duong Tran 1-512-396-3471
*오스틴 jwuil@austin.rr.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mechat@email.msn.com
Mr. Weidong Duan 1-214-528-9178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roltex@interserv.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370-3898
DNguyen376@aol.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32507@aol.com
*샌안토니오 1-210-558-6088
버지니아: Mr. Khoi Kim Le 1-703-573-2760
Mr. David R. Craig 1-703-573-2760
justmeditate@hotmail.com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Mr. Ben Tran 1-425-643-3649
*시애틀 benpran007@hotmai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푸에르토리코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카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shantiragyi@hotmail.com
아시아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n 374-1-227303
armenhovhannisyann@hotmail.com
버마 Mr. Sai San Aik 951-667427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Mr. Chuan-Ping Yang 886-2-23756784
Mr. Chiu Min Fen 886-2-23890885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카오슝 Mr. Chu Chen Pei 886-37-724726
Mr. & Mrs. Yao-Jong Chang 886-7-7454062
Mr. Fei Lung Wu 886-8-7211692
Mr. Yuan Hua Wu 886-8-7562020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lovequanyin@hotmail.com
인도: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뭍베이 Mr. Ashok Sinha 91-33-655-6741
캥커터 센터 62-21-6319066
인도네시아: smch-jkt@dnnet.net.id
자카르타 62-21-6319061
Mr. Tai Eng Chew 62-21-6510218
Ms. Lie Ik Chin financel@ueii.com
62-21-3840845
Ms. Murniati Kamarga hai@cbn.net.id
62-21-7364470
Mr. I Ketut P.Swastika 62-31-5673084
센터 ahimsasb@indosat.net.id
62-31-5678962
Mr. Rong-Tser Teng 81-27-9961022
일본: Ms. Hiroko Ichiba truelove@meth.biglobe.ne.jp
군마 81-96-346-2928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genesis@mb.infobears.ne.jp
81-6-6782-9643
오사카 Mr. Ryu Norithito 81-3-3307-1643
도쿄 Ms. Yukiko Sugihara cal13840@pop07.odn.ne.jp
81-90-3963-0755
Mr. Yoshie Takeda y-plus@f6.dion.ne.jp
한국: 서울 서울 센터 82-2-5772158
서울 quanyim@unitel.co.kr
오종철 82-2-5755080
김영철 82-2-2981822
유태인 82-2-7953927
정창열 82-2-22038186
부산 부산 센터 82-51-5819200
quanyin@unitel.co.kr
이상식 82-51-7835399
송호준 82-51-9574552
황상원 82-51-8057283
이원석 82-51-8946645
전주 센터 82-652-2747553
임지환 82-652-2729087
인천 센터 82-32-5795351
백용재 82-32-8880110
대구 대구 센터 82-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82-53-9572858
유진호 82-53-8568509
장익현 82-53-753264
대전 대저 센터 82-42-6254801
김수동 82-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82-62-2329613
김소연 82-62-2325630
제주도 제주 센터 82-64-799-6113
안동 안동 센터 82-54-8213043
김삼태 82-54-8734961
영동 영동 센터 82-54-5325821
houmri@unitel.co.kr
청옥 청옥 센터 82-54-6731399
chinghai@unitel.co.kr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853-532995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쑤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upreme2@tm.net.my
팔라뭉푸르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gcp@hotmail.com
센터 60-3-9873904
klsmch@tm.net.my
페낭 센터 60-4-8279903
smchpg@tm.net.my
60-4-6420370
몽고: 울란바토르 Mrs. Luvsan Tsengel 976-1-344604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센터 977-61-28144
world@comm.mos.com.np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neupanebishnu@hotmail.com

| | | |
|--|--|---|
| 필리핀 | 마닐라 센터 | 632-247-2291 manilach@hotmail.com |
| 싱가포르 | 센터 | 65-741-7001 chinghai@singnet.com.sg |
| 스리랑카: 콜롬보 태국: 방콕 | 연락인 사무실 Mrs. Suranganie Dayaratne | 65-846-9237 94-1-889884 |
| | 센터 | 662-682-0138~9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
| 치앙마이 | Mr. Wu Peir Yuan | 66-1-8248294 |
| 하야이 | 센터 | 66-53-217080 |
| | Ms. Siriwan Supatrchamnian | 66-53-387126 |
| 콘겐 | 센터 | 66-74-368329-30 (c/o 155) |
| | Mr. Paisal Chuangcham | 66-43-261878 66-43-241718 |
| *** 유럽 *** | | |
| 오스트리아 | 비엔나 센터 | 43-664-3909200 ChinghaiVienna@hotmail.com |
| | Mr. & Mrs. Nguyen Van Dinh | 43-2955-70535 |
| | Mr. Shih-Tsung Lu | 43-2266-80399 sound@gmx.at |
| 벨기에: 브뤼셀 | Mr. Hugo Berton | 32-1640-0377 kimhuyen.luu@swing.be |
| 불가리아 | Mr. Ruslan Staykov |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
| 체코: 프라하 | 센터 | 42-02-90058578 prague_center@hotmail.com |
| 크로아티아 | Mr. Zeljko Starcevic |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 덴마크 핀란드: 헬싱키 | 연락인 사무실 Miss. Luong Hoang Hanh | 45-66-190459 358-9-8537455 fin_con_hhanh@artic.net |
| | Ms. Anne Nystrom | 358-9-793902 anne.nystrom@iobox.fi |
| 프랑스: 파리 | 센터 | 33-1-4300-6282 ChingHai@illumination.claranet.fr |
| | Ms. Lancelot Isabelle | 33-1-40301174 newsfrance@claranet.fr |
| 베히/마른 | Ms. Ngo Thi Huong | 33-1-424-31924 tngo@free.fr |
| 몽펠리에 아르데슈 독일: 베를린 | Mr. Nguyen Tich Hung Ms. Reynet Jeanine | 33-4-67413257 33-4-75376232 |
| | 센터 | 49-30-3470-9262 berlincenter@hotmail.com |
| 뒤셀도르프 | Mr. Christian Bastwoeste | 49-30-3470-9262 |
| | 연락인 사무실 | 49-5232-68564 49-211-5144785 ngoc-thao.nguyen@gmx.de |
| 함부르크 뮌헨 | 연락인 사무실 Ms. Kang Cheng | dusseldorfcenter@hotmail.com 49-581-15491 49-89-3616347 |
| | Ms. Johanna Hoening |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 그리스: 아테네 | Mr. Constantine Manos | 30-61-278106 constantinem@hotmail.com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Mr. Nguyen Ngoc Trung | 31-294-41-9783 Vothuong5@cs.com |
| | Mr. Marcel Mannaart |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 헝가리: 부다페스트 | 센터 | 361-363-3896 heaven.bud@mail.matav.hu |
| | Mr. Lux Tamas | 36-309-611994 |
| | Ms. Dora Seres | 36-1379-1924 |
| 아일랜드: 더블린 | Mr. & Mrs. Bernard Leech | 353-1-6249050 berardleech@unison.ie |
| 노르웨이: 오슬로 | Mr. Nguyen Ngoc Tai | 47-22-612939 tnguyen@c2i.net |
| 폴란드: 슈체친 바르샤바 | Mrs. Grazyna Plocinizak Mrs. To Soszynska | 48-091-4874953 48-22-6593897 mintra@polbox.com |
| | Ms. Lukaszewska Mariola | minhtrang4@yahoo.com 48-42-6860037 czakra@interia.pl |
| 포르투갈: 리스본 | Mr. Helder Hen Keon Kong | 351-1-920-4118 |

| | | |
|--|---------------------------------------|---|
| 슬로베니아 | lisbon_center@notmail.com | 386-63-814981 dbk@siol.net |
| 스페인: 마드리드 | Mr. Rastislav Alfonz Kovacic | 386-63-814981 dbk@siol.net |
| 말라가 발렌시아 | 센터 | 34-91-5470366 |
| | Ms. Lidia Kong | 34-91-6410275 |
| | Mr. Wang Ya-King | 34-95-2351521 |
| |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 34-96-3336208 |
| | Vegetarian House | 34-96-3744361 |
| | Mr. Yu Xi-Qi | 34-96-3726401 valenciachinghai@yahoo.es |
| 스웨덴: 엔겔홀름 | Mrs. Luu Thi Dung | 46-431-26151 Vivianne@Lycosmail.com |
| 오레 | Ms. Viveka Widlund | 46-647-32097 widlund@hem.utfors.se |
| 말뫼 스톡홀름 | Mr. & Mrs. John Wu Mr. Mats Gigard | 46-40-973452 46-8-882207 mats@sirfield.nu |
| 옵살라 | Ms. Premila Perera Ivarsson | 46-18-302029 premila-perera@pharmacog.uu.se |
| 스위스: 제네바 | Ms. Feng-Li Liu | 41-22-7973789 fengli@ilo.org |
| | Ms. Klein Ursula | 41-22-3691550 |
| 영국: 체스터 | Mrs. Janet Weller | 44-1782-414989 janet.weller@zoom.co.uk |
| 런던 | 센터 | 44-208-3742743 |
| | 연락인 사무실 | 44-207-4731421 pnl@matters19.freemove.co.uk |
| 서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 Mr. Hu Tchang Rong | 44-1293-416698 |
| | Mrs. Annette Lillig |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
| 글래스고 | Mr. Robert Jackson | 44-141-637-7255 Robert.jackson@classicfm.net |
| 러시아: 모스크바 | Mr. Rupasiri Perera | 7-095-2424953 perera-rupasiri@mtu-net.ru |
| *** 대양주 *** | | |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 Mr. Leon Liensavanh | 618-83326192 617-3374-3339 briscentre@hotmail.com |
| | Mr. Gerry Bisshop | 617-3847-1646 |
| | Mrs. Tieng Thi Minh Chau | 617-3715-7230 ctieng@dme.qld.gov.au |
|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 Mr. & Mrs. Yun-Lung Chen | 617-3344-2519 |
| | Mr. & Mrs. Ray Dixon | 612-6685-3248 rayandjulie@linknet.com.au |
| 캔베라 | Mr. & Mrs. Khanh Huu Hoang |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 멜버른 | 센터 | 613-9890-0320 Melbsmch@aol.com |
| | Mrs. Rosemary Nagtegaal | 613-9585-7871 |
| | Mr. Pham Van Bon | 613-9470-4573 |
| | Mr. Alan Khor | 61-3-9857-4239 |
| 퍼스 | 센터 | 61-8-9242-1189 |
| | Mr. David Robert Brooks | 61-8-9418-6125 daveb@inet.net.au |
| 시드니 | Mr. Ly Van Tri | 61-8-9244-7661 |
| | Mr. Eino Laidsaar |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
| | Mr. & Mrs. Lam Anh Tuan | 61-2-9604-4589 smsydney@bigpond.com |
| | Mr. Hong Bo |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 태즈메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 Mr. Peter John Boatfield | 61-3-62293878 |
| | Mr. Kym Anton Toia | 649-419-4470 nzanton@yahoo.com |
| | Mrs. Noelyne No Thi Ishibasi | 649-277-9285 takahide@xtra.co.nz |
| 크라이스트처치 | Mrs. Chanwu Wong | 649-266-6898 |
| | Mr. Michael Lin |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
| 해밀턴 | Mr. Glen Vincent Prime | 647-849-4442 glenprime@hotmail.com |
| 타우랑가 | Ms. Joy Daniels | 647-544-5268 |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는 경우 가까운
국가나 도시의 연락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안으로 천상의 보석을 감상하라

스승의 집



◀칭하이 무상사가 디자인한
천상의 보석: 스승의 집

칭하이 무상사/ 1988년 9월 24일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3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3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전히 해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자마자 나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3계를 초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스승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승은 그들을 데리러 오거나 혹은 다른 성인을 보내 그들을 데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승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수행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스승이 머무는 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 수 있으려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선악에 대한分別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복잡해질 겁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 많고 증오심이 너무 큼니다. 그래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는 걸 보면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때 우린 자신이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수준이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을 씻어내는 일은 무척 어렵

습니다. 이 증오심이 우주 내의 다른 존재들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모든 창조물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신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더 자비롭고 사랑으로 넘치고 관대해질 때 우리는 좀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오심은 반드시 씻겨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성스러운 이름을 외우십시오. 성스러운 이름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린 모두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합시다. 우리가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왔을 때, 예수가 내려 왔을 때, 지구는 텅 비어있었죠. 단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인간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가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의 정원으로 오세요!

칭하이 스승님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우리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사랑의 멜로디로 가득한 시들을 써왔습니다. 이들 작품들을 몇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 그 가운데서 두 권의 시집 '잃어버린 추억'과 '나비의 꿈' (어울락 어판)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선집 '잃어버린 추억'은 칭하이 스승님이 출가를 하기 전에 쓴 시들을 모은 것이고, '나비의 꿈'은 득도(得道)하기 전후의 작품들을 담은 것입니다. 이들 시집은 칭하이 스승님이 걸어온 희노애락의 삶의 흔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 역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빗구 속에 담긴 스승님의 섬세한 사색들을 깊이 공감하며 존재의 심오한 의미를 숙고하게 합니다. 게다가 어찌면 다행스럽게도 칭하이 스승님이 그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헌신적인 수행을 통해 결국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위대한 자신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비의 꿈

